

합성부터 시작한 우리 화성산업(1)

우리 나라 화성산업에 있어서 1973년은 이제까지와는 궤(軌)달리하는 전환점으로서 자못 의의 깊은 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어수선했던 6·25 전란 시절 나일론이 첫선을 보인지 20년 만에 우리손으로 뽑아낸 화성이 100,000 톤대에 이른 해이고, 본격적인 생산을 개시한지 10년만에 수출체제로 체질을 바꾸고(내수 43.6 : 수출 56.4), 화성 최초의 불황을 수출확대로 극복한 해로서 새로운 도약의 가능성을 체험으로 인식한 해이기 때문이다. 72년 상반기에만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전년도부터 지속되어 온 선진 공업국의 불황과, 이를 배경으로 한 석유류 수입규제 강화(미국의 수입규제 초년도)등 국제여건이 악화되어 있었고, 대내적으로는 환율인상에 따른 외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의 증가와 원료대의 상승, 외국산의 덤핑에서 오는 시황의 불안정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 재고는 누적되고 조업률은 계속 떨어져 가격의 폭락을 면할 길이 없었으나, 하반기에 접어들어 8월 3일 단행된 소위 8·3조치라고 불리는 사채동결, 특별대환(特別貸換), 환율고정, 금리인하 등 일련의 비상조치로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경감되고, 금융긴축 완화로 자금사정이 호전 되는데다가 해외의 석유수요가 다시 살아나면서 수출이 호조를 보임으로써 침체했던 업계가 서서히 활기를 되찾기 시작한 해가 바로 1973년인 것이다.

미국의 달러화 방위와 자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마련된 극동 4개국에 대한 석유류 수입규제는 업계의 앞날을 흐리게도 하였으나, 일본의 엔화절상으로 국제 시장에서의 우리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강화된 위에 당국이 적극적으로 수출지원 정책을 펴서 업계를 뒷받침해주었다.

원자재의 수입제한을 계속 강화하고, 수출금융 규정을 통일 단일화하여 수

출금율을 활성화 시켜주었으며, 화섬업계 스스로는 가득물을 제고시키는 한편 수출책임제 및 자가보상제를 실시하여 수출을 촉진하고, 로스(loss)율의 대폭인하와 1년간의 직물류세 인하(4%-8%)에 힘입어 내수시장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수출전략 산업으로 크게 발돋움하게 되었다.

1973년은 또한 8·3조치로 얻은 힘을 바탕으로 수출수요의 학층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공산품 수출액 가운데서 섬유수출이 38.1%이고, 국산 화섬 공급의 61.5%가 수출용임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국제 경쟁력을 하루 빨리 갖추어야 했다. 따라서 화섬공업의 생산원가 절하와 건설비 절감을 위해서 경영단위를 국제경쟁이 가능한 적정 단위 규모로 조속 확장 시킴과 동시에 원료의 자급화 진전을 통한 국제경쟁력 배양에 힘을 쏟았다.

그러나 1973년 10월에 발발한 중동전(中東戰)을 계기로 야기된 석유파동은 자원무기화라는 새로운 돌풍을 몰아왔다. 아랍제국이 석유공급을 삭감하고 원유가격을 대폭 (1년 동안에 무려 4배) 인상했고 이것이 성공을 거두자, 천연자원을 많이 가진 개발도상 제국의 자원내쇼널리즘이 눈을 뜨고 가격조작에 나서게 되었다. 부존자원을 갖지 못한 선진 공업국들이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제개발 계획에 가속이 붙으려는 시기에 몰아닥친 이 석유파동은 계획 자체의 재검토를 필요로 했으니, 화섬원료 공장을 포함한 석유화학공업의 재검토와 수출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했다. 화섬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화섬업계는 폭등하는 원료가격은 차치하고 물량확보에 안간힘을 다 쏟았다. 8·3조치로 얻은 탄력으로 호조를 보였던 업적이 연말로 가면서 급전하고 만다. 석유류 값 인상(13%)과 원료값은 뛰는데 내수가격은 8·3조치로 묶여 있고 수출용 원자재 가격은 오히려 국제가격보다 싸게 공급되었다. 이렇게 볼 때 이 시기는 우리 화섬산업사에 있어서 분명히 한 획을 긋는 전환기라고 여겨진다.

제2편에서는 완전 변신하는 72-73년까지의 주요 사안(事案)과 현재의 화성
생산, 산업자재용 현황 및 기술 수준을 다루려고 한다.